

CEO 동정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현장회의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7월 25일 수도권고속철도 동탄정거장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국정과제실천방안 모색 및 지역여론 수렴 등을 위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현장회의에 참석했다.

궤도장치 시험성적서 위조 방조한 직원 징계

- 성능검증 절차 강화로 시험성적서 위조 원천봉쇄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운)는 5월 18일 AVT社의 인천공항철도 자갈계도체결장치 적용 시험성적서 위조 건과 관련해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에 소환한 담당자 3명을 징계하고 관련자 5명은 경고, 주의 처분하는 한편, 앞으로는 시험성적서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AVT社가 기술요건 적합성 검증 신청 시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 전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고 연구원 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신청을 반려하고 철도기술연구원에 법적제재를 요청함으로써 동사 제품이 인천공항철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당시 본부는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AVT社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형사고발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였는데, 계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VT社의 다른 제품이 호남고속철도에 납품되었으나, 이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하려던 인천공항철도 자갈계도의 150km/h 속도에 적용되는 E-clip과는 다른, 350km/h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에 적용되는 Rheda2000 제품이다.

Rheda2000은 한국화학융합연구소의 성능검증이 완료된 제품을 감리단에서 공급 승인한 것으로 지난해 5월 AVT社가 연구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제품과 사용목적 등이 다르며, 설

사 AVT社 제품을 배제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5년 내 25% 이내 변화 조건을 충족하는 레일패드도 국내에 없어 '14년 말까지 준공해야하는 호남고속철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철저한 안전 점검을 거쳐 사용했다.

또한, 본부는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 적용한 궤도자재에 대해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처리한 시험성적서를 전면 점검한 결과 1996건 중 7개 업체에서 13건의 시험성적서 변조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강구 중이다.

* 시험성적서 변조내용 : 13건

- 팬드롤(1건) : 레일패드 판리시험결과
- 삼표이앤씨(2건) : 분기기 베이스플레이트 상판 발급일자 와 레일산축이음매 시험결과
- RT-korea(4건) : 탄성부리재(2건), 바라스트 매트(C형), 도상안정제 발급일자 및 시험결과
- 태영실업(2건) : PC침목 혼화재, 보통철선 발급일자 및 시험결과
- TM트랙시스템(2건) : Bi-Block 침목 혼화재, 콘크리트 용강 발급일자 및 시험결과
- 은성기공(1건) : 절연레일 접착시험편 시험결과
- 한일레미콘(1건) : 레미콘 사용용 발급일자

본사 회의실 '이용자 만족도' 높아

- 2010년 개방 이후 약 2만여 명 이용...
이용 고객 증가 추세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본사 사옥의 교육장, 회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국민에 개방하여 대외 인지도 향상과 임대수입 창출 등의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다.

올 상반기 공단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65.1% 증가한 8199명으로, 임대를 통한 사용자 수입은 4000여만원에 이른다.

최문규 경영지원처장은 "2010년부터 편의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지금까지 2만2000여명이 회의실을 이용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편의시설 이용 고객 대상 설문 결과 응답자의 92.3%가 만족하여 재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대전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열차 이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게시판

주요뉴스 ('13.8.5~'13.8.11)

- 시험성적서 위조 적발업체 점검 (대전일보09)
- 삼표이앤씨와 호남고속철 분기기 계약 (파이낸셜22)
- 타당성 합격선-수익성 기준미달 "이용객 부족 편해" vs "수요 늘것" (동아일보14)
- 철도공단 상반기 이산화탄소 668톤 감축 (서울경제25)
-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전분기 대비 0.6% 상승 (강원일보06)
- 영동읍 사가지 막힌 도로 '뽕 뚫렸다' (충청투데이13)
- "주변과 따로 노는 건축물 못 짓는다" (한국경제25)
- 슈퍼甲 상대로 "추가비용 달라" 소송 (동아일보B02)
- 공공정보 공개 청구 없이 인터넷서 본다 (서울신문10)
- 정신나간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세계일보12)
- 내년 열차 하루평균 34회 증차 (중도일보03)
- 경의선 폐철로 이어가있는 숲길로 (세계일보14)
- 원주 레일바이크 불법 운영... 경찰 수사 착수 (서울신문11)
- GTX 건설 싸고 경기도내 '불합침' (경인일보01A)
- 강남구, 내무순환 도시철도시대 연다 (파이낸셜23)
- 상반기 국내건설 수주액 39조...전년비 28% 감소 (한국경제23)
- "공기업 개혁 위해선 민간과 경쟁시켜야" (한국경제10)
- "대전 명품역사 건설 내년 6월 이전 첫 삽" (대전일보04)
- 맥쿼리, 9호선 철수한다 (동아일보18)
- 건설현장 근로감독관 둔다 (충청투데이07)
- 대한민국 관가는 지금 벽 허물기 MOU 경쟁 (중앙일보06)
- 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 중앙정부 전담기관이 직접 검증 (서울신문05)
- 날개 단 '영일만 르네상스'...해항관광도시 꿈 성큼 (동아일보18C)
- '마의 구간' 갈산터널 2년 4개월만에 완공 (파이낸셜22)
- 호남고속철도 갈산터널 2년 4개월만에 완공 (대전일보09)
- 인천신항 철도부설에 무심한 시 (인천일보01)
- 대체휴일제, 우리 회사도 쉴 수 있을까 (동아일보01)
- 공공갈등 해결 위한 국가공론위 설립 필요하다 (서울신문26)

2013년 상반기 온실가스 668톤CO₂ 감축

- 시설물 · 차량 대상 목표 대비
126% 초과 달성 -

연구원(원장 임영록)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에 관한 정부방침을 적극 이행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530톤CO₂를 상회하는 668톤CO₂를 감축하여 목표대비 126%를 초과 달성했다.

공단은 CO₂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하절기 실내온도를 28℃ 이상 유지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피크시간대 냉방기 순차운휴, 연중 복도 등의 격등 운영, 점심시간 절전, 야간조명 자동소등, 엘리베이터 격층 · 제한 운행 및 에너지 절전형 LED조명 교체 등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이행했다.

원전가동 중단과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국적인 전력난을 이겨내고자,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법정부적 의지에 전 임직원이 적극 동참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단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668톤은 24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며 "사무공간의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역사 등 철도시설물을 건설할 때도 총 전력 소비량의 20%를 태양광, 지열, LED 조명 등을 활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역사 및 폐선부지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발전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부선 경산역 KTX 승강장 개량사업 착수

- 경산 · 청도 인접지역 주민
KTX 이용 편의 증진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경상북도 경산 · 청도 지역주민들이 고속철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산역 KTX 승강장을 개량한다.

지난해까지 KTX가 무정차 통과하던 경부선 경산역은 올해부터 1일 4회 정차하면서 이용객이 증가했지만 현 승강장(396m) 길이가 짧아 승객들이 열차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승강장 길이를 20량 편성의 KTX 정차역 규격에 맞게 412m로 늘리고, 플랫폼 지붕도 158m 연장, 장애인 유도블럭 등도 설치한다.

약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7월 31일 입찰공고 후 8월 20일까지 시공사 선정 및 공사에 착수하여 11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본부는 철도이용객의 불편을 없애고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승강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확충할 계획이다.

수도권본부, '반바지 데이' 시행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국가적 전력수급 비상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8월 7일을 '반바지 데이'로 지정하여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벌인 결과, 80% 이상의 직원이 반바지를 착용하는 등 에너지 절감 노력에 적극 동참했다.

본부는 7월 24일부터 고강도 에너지 절감대책을 위해 사무실 전체 에어컨을 차단하고 일반 에너지 사용량 체크 및 간소복 착용을 적극 권장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염 및 여름철 무더위 피크기간에는 반바지 착용 등으로 국가 에너지 절감시책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도권본부 이기재 기자>



호남본부, 상반기 자체 청백리상(팔마상) 수여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13년도 상반기 청렴활동 평가를 통해 선정된 6명의 직원들에게 8월 6일 청백리상을 수여하고 전 직원들이 청렴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부는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팔마 청백리상을 제정하여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본부 전 직원의 청렴윤리의식 고취 및 격려를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호남본부 김형민 기자>



경 조 사

- 시설사업본부 중국지사(T/F) 송동수 과장 병모상
- 발 인 : 2013년 8월 6일
- 건설본부 고속철도차 김용두 부장 병부상
- 발 인 : 2013년 8월 10일